광주의 문화자산, 다양한 콘텐츠로 만나다

책과 웹툰으로 본 광주 문화·관광

광주에는 오래된 레코드사, 식당 등 문화자원이 많다. 충장로 25시 음악사.

오래된 것들은 역설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광주의 오래된 서점, 레코드사, 사진관, 표구사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점포는 그 자체로 문화자산이다. 광주의 오래된 가게와 문화자원 발굴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발간됐다. 또한 광주의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웹툰도 매주 시민들과 만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웹툰으로 만나는 광주'는 광주의 명소와 음식을 웹툰이라는 장르로 담아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양한 콘텐츠로 만나는 '광주의 문화자산'

광주문화재단이 발간한 2권의 책 '사라지는 것들에 기대다'와 '광주의 지문Ⅱ'는 각각 오랜 세월 다양한 문화와 시대의 환경에 영향을 받은 오래된 가게와 지역 문화를 연구한 결과물이다.

'사라지는 것들에 기대다'는 '광주문화자산구축사업'을 위해 오래된 가게를 모티브로 했으며, 광주모노그래프 시리즈로 발간됐다. 지난해에는 '광주학활성화사업' 일환으로 '길'을 펴낸 바 있다.

'사라지는 것들에 기대'는 각각 서점, 오래된 식당, 예술의 거리, 레코드사, 사진관 등이 등장한다. 소설, 영화, 문학비평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필진들의 개인적 기억과 현지 조사를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소개된다.

각각의 글은 '책들의 종점, 계림동 헌책방 거리'(김동하), '옛날 옛적 '청글'에서'(김형중), '오래된 식당과 한 끼의 味학'(박성천), '예술의 거리, 냄새나는 시간을 거스른다'(범현이), '세상의 모든 음악이 있는 곳'(이화경), '오래된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한재섭) 등이다.

김동하 소설가는 계림동 헌책방의 '문학서점', '광주고서점', '유림서점'의 역사와 문화자산으로서의 의미를 담아낸다. 그는 "헌책들에는 저자의 기록만 잇는 게 아니다. 독자의 기록과 혹은 독자에게 그 책을 선물한 이들의 기록이 더불어 살아있다"고 말한다.

이화경 소설가는 금성레코드사, 25시 음악사, 명음사에 얽힌 추억을 유려한 문체로 풀어낸다. 1970년대 10대를 관통하던 시절, 음악에 빠져들었던 이야기는 레코드사의 역사와 어울려 잔잔한 울림을 준다.

또 다른 책 '광주의 지문Ⅱ'는 '광주문화백년대계'라는 광주문화자원발굴 소모임 지원사업 결과물이다. 지난해 이은 두 번째 결과물로 올해는 '극장전', '아따그라제', '인류딜', '무등농악전승보존연구회' 등 4개의 팀이 선정돼 광주문화연구를 위한 자발적 조사와 세미나를 이어갔다. 이들은 각각 광주의 근현대 연극·영화사, 광주말(방언), 전남대 주변 도시공간, 용연마을의 농악연구를 진행했다.

광주관광재단이 제작한 웹툰 '내 이름은 광주'

문화재단 '사라지는…' 등 2권 발간

소설·영화·비평 등 활동 필진들 오래된 서점·사진관·표구사 등 개인 기억·현지 조사로 소개

◇가상인물 '전광주' 일상 통해 만나는 광주

33세 전광주는 10년차 프리랜서 웹툰 작가다. 서울 토박이지만 결혼 후 남편의 직장이 있는 광주로 내려와 산지 1년째다. 전광주의 취미는 SNS를 운영하는 것. 전광주는 먹는 것, 가는 곳 마다 사진을 찍어 SNS에 업로드 한다.

가상인물 전광주의 일상을 통해 관광지, 맛집 등 광주의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웹툰이 제작됐다. 광주관광재단(대표이사 남성숙)은 광주를 배경으로 한 웹툰 '내 이름은 광주'를 제작해 매주 수요일 인스타그램, 카카오플러스 등 공식 SNS 채널에 연재중이다.

지금까지 총 3화의 웹툰이 업로드된 상태이며, 웹툰에서는 가상인물 전광주의 일상을 통해 애호박찌개, 양동통닭, 무등산 등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과 관광자원을 이야기한다. 재단은 SNS를 주로 사용하는 젊은층을 타켓으로 웹툰을 제작했으며, 중장년층은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1화에서는 전광주가 광주에 내려와 애호박찌개를 처음 맛보게 되는 에피소드를 담았다. 이미 수차례 TV프로그램에 소개된 적있는 애호박찌개는

관광재단 '내 이름은 광주' 웹툰 제작

가상인물 '전광주' 일상 통해 양동통닭·무등산 등 소개 매주 수요일 SNS 채널 연재

애호박과 돼지고기에 진한 국물이 더해져 식욕을 자극한다. 애호박찌개의 맛을 본 전광주는 마치 엄마가 해주신 음식같다는 소감을 전한다.

2화는 전광주가 약속장소인 5·18 민주광장에 일찍 도착하면서 시작한다. 조금 일찍 도착한 전광주는 오후 5시 18분이 되자 울려퍼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듣게 되고, 전일빌딩 총탄자국 등 5·18의 흔적들을 마주한다. 그것도 잠시, 전광주는 일행을 만나 양동시장에 있는 양동통닭집으로 향한다. 그는 양동통닭에 대해 '마지막 한조각, 남편도 줄수 없는 그맛'이라고 표현한다.

3화에서는 광주관광재단이 진행중인 무등산 포토존 이벤트 이야기와 광주 김치를 다룬다. 이번 화를 통해 독자들을 대상으로 이벤트 참여를 독려하며, 김장철을 맞아 열린 빛고을 김장대전에서 담근 김치도 소개한다.

재단은 앞으로 양림동 펭귄마을, 근대역사마을 등 다양한 주제로 웹툰을 제작할 예정이며, 웹툰을 책으로 엮어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강아지풀' 등 동심으로 그린 사랑

조오복 시인 두 번째 동시집 '페인트 칠하는 담쟁이' 펴내

조오복 시인이 두 번째 동시집 '페인트 칠하는 담쟁이'(아동문예)를 펴냈다.

모두 60여 편의 작품집에는 '단호박', '봄비', '방귀놀이', '마음 줄다리기', '강아지풀', '가을 풍경화' 등 동심과 일상을 소재로 한 시들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동시집에서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동심은 곧 사랑이라는 잔잔한 의미를 던져준다.

"백 일 지나 포동포동한 동생/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는 엄마,// 동생 배에다 입 대고/ 부르릉! 부르릉!/ 입방귀 뀌어주면// 까르르! 까르르!/ 웃는 동생// 나도 동생 손등에다/ 부-웅! 뿌-웅!/ 입방귀 뀌어주면…"

위 시 '방귀놀이'는 엄마가 아기에게 쏟아붓는 사랑을 그렸다. 아무런 대가 없는 엄마의 사랑이 천진난만한 아기의 울음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듯하다. 시인은 '방귀소리'가 다름 아닌 사랑이 만들어내는 행복의 소리임을 노래한다. 이처럼 각각의 작품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고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문삼석 시인은 해설에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알며,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자는 것, 그 길만이 함께 웃고 함께 노래하며 다 같이 함께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평한다.

한편 조오복 시인은 제26회 광주시민백일장 대상, 제14회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 백일장 우수상, 제284회 아동문예 신인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자연과 희로애락 덤덤하게 풀어내

신용기 시인 '당신의 바다' 발간

영암 출신 신용기 시인이 네 번째 시집 '당신의 바다'(동산문학사)를 펴냈다.

세 번째 작품집 '빨간 립스틱과 맥주' 이후 5년여 만에 펴낸 시집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지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해, 시선을 잠시 밖으로 돌려 자연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길 바라는 시인의 마음이 담겨있다.

"세월의 수레바퀴 지나간 자욱/ 에메랄드 빛으로 출렁이며/ 자연이 금빛 조화를 이루는/ 눈물 머금은 당신의 바다/ 여울지는 춤사위 타고/ 아련히 떠오르는 얼굴/ 바다 위 설렘과 두려움/ 슬픈 사연 꽃 피우고/ 지친 영혼 달래어 주는가"

'당신의 바다'가 담고 있는 시들은 바다와 땅, 산 등 모든 자연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사 이모저모가 서정적으로 녹아 들어 있다. 생명이 익어가는 계절과 성숙해가는 풍경, 그리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덤덤하게 풀어낸다.

신용기 시인은 "이번 시집은 자연에 접목된 나의 독백이자 내 안에 고여 있던 삶의 고백서"라며 "이 시집이 누군가에게 상상력을 촉발시키고 한줄기 영감을 선물할 수 있으면 멋진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용기 시인은 '문예시대'로 등단했으며, 영암문학회 부회장과 부산문학인아카데미 이사 등을 역임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문예회관, '광주국악상설공연' 작품 공모

내년 1월 11~20일 접수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은 '광주국악상설공연' 무대에 올릴 창작공연 작품을 공개모집한다.

공모는 국악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며, 광주의 특성을 담은 광주다움이 드러난 창작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1시간 이내 단일 혹은 복합분야 작품을 모집한다. 광주지역 민간예술단체 또는 광주지역 내 공연활동이 있는 단체 및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시연을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2021년 1월11일부터 20일까지다. 관련 서류는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지원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양식 및 자세한 모집 내용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악상설공연은 광주시립창극단,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지역국악단체 등이 광주만의 색깔을 담은 전통국악과 창작국악, 퓨전국악 등을 선보이는 공연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G.O.Auction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매매물건

건 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 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리조트 매매

소재지 :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 토 지 : 22784㎡(6892평) • 건 축 물 : 4290㎡(1298평) 지상5층
• 총객실수 : 55세대 • 부대시설 : 세미나실, 카페, 매점, 바베큐장
• 매 매 가 : 80억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